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주간 퀀틴전시 플랜] 지금은 가장 깜깜한 동트기 직전. 미국 대선 이후 해가 뜰 것

- 10월말~11월 1일 KOSPI 레벨다운은 수렴의 정점 이후 속임 패턴
- 미국 대선 / FOMC / 중국 상무위 이후 억눌렸던 KOSPI의 탄력적 반등 기대
- KOSPI 2,550선대부터 변동성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주목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4Q24 Review] 엔씨소프트: 3Q, 뜻대로 되지 못한 호연

- TP 상향. 2025년 인건비 7% 하향 조정 영향. 단, 밸류 부담 지속
- 3Q 신작 호연의 흥행 부진, 마케팅비 증가로 컨센 하회하는 실적 기록
- 4Q 탑라인 성장 예상되나 큰 폭의 인건비 증가 예고, 사라진 실적 모멘텀

이지은. jeeun.lee@daishin.com

### [Issue Comment] 여행업: 중국향 순풍이 불어온다

- 중국 비자면제로 여행업 순풍. 2016년보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순풍 예상
- 25년 中패키지, 보수적인 가정해도 YoY+30%.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
- 3분기 악재로 실적 부진하나 4분기 정상화되는 모습. 턴어라운드 기대

임수진. soojin.lim@daishin.com

### [3Q24 Review]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실적이 아닌 투심의 문제

- 3Q24 OP 컨센/당사 추정대비 +15% 서프 => 주가 단기 반등 가능
- 추세적인 회복/상승 위해서는 주주환원(배당)확대 => 투심회복 필수적
- 주주환원 확인된다면, 최소 Peer 밸류(평균 8.1배/컨티 7.1배) 회복 가능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 [3Q24 Review] S-Oil: 예상된 적자, 4Q 반등 전망

- 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으로 정유부문 3Q 영업이익 -5,737억원, 적자확대
- 중국 석유제품 수출 감소, 북미/유럽 정기보수 집중으로 4Q 석유제품 수급 개선 전망
- 현재 동사의 PBR 0.76배로 근 5년 내 최하단에 위치,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 유효

위정원. jungwon.ween@daishin.com

# 지금은 가장 깜깜한 동트기 직전. 미국 대선 이후 해가 뜰 것

- 10월말 ~ 11월 1일 KOSPI 레벨다운은 수렴의 정점 이후 속임 패턴
- 미국 대선 / FOMC / 중국 상무위 이후 억눌렸던 KOSPI의 탄력적 반등 기대
- KOSPI 2,550 선대부터 변동성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주목

**Issue : 고용부진 Vs. 물가불안 + 트럼프리스크 = 채권금리, 달러화 상승압력 지속 / 삼성전자 반등에도 KOSPI 2,550선 하향이탈 현상은 과도기**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었지만, 임금 상승률 반등 지속과 물가 불안, 트럼프 리스크가 기대심리를 제어. 미국채 10년물은 4.38%를 상회, 2년물은 4.2%를 넘어섬. 달러화 104p 상회. 통화정책 기대의 정상화를 넘어 25년 타이트한 통화정책 우려로 전환. 경기, 통화정책 변수 외에도 트럼프 리스크 부상이 글로벌 증시는 물론,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을 자극

9월말 삼성전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KOSPI는 2,550선 하회. 10월 25일 기점으로 KOSPI 성격 변화 과정에서 과도기적 조정이라고 판단. 3분기 실적 시즌 지난 뒤 실적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되었지만 해당 과정에서 수출 부진이 KOSPI 하락 압력 확대. 외국인 매매패턴 또한 10월 25일 기점으로 변화. 10월 25일 이후 반도체, 삼성전자 순매도 규모 축소 & 실적 호조 기대에 강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 출회. 결국 시차를 두고 KOSPI 상승 압력 확대 예상

**Inflection Point : 미국 대선, 채권금리/달러화 고점 통과/하향안정, 중국 경기 회복 가시성, 실적시즌 통과 이후 저평가 매력, KOSPI만의 계절성**

현재 트럼프의 당선 확률 빠르게 축소. 펜실베이니아(19)의 결과가 이번 47대 미국 대통령 결정의 핵심. 지금부터는 트럼프 피해주 / 해리스 수혜주 주목. 누가 당선되든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 해소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

11월 FOMC를 통해 금리인하 사이클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필요. 연준의 스탠스 재확인된다면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 국면 재진입 예상

시차를 감안할 때 24년 4분기 중 중국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 만약 경제지표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부양 기대 강화 예상. 특히 11월 4-8일 상무위원회 이후 집행 가능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

3분기 실적시즌 정점 통과 이후 실적 개선 여부보다 저평가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중

11월, 12월에는 KOSPI 상승, 12월 배당락으로 인한 선물 베이스 변동 확대로 인한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 - 프로그램 매수 대규모 유입 영향으로 반전 트리거 가능

**Trading 전략: 실적대비 저평가주 &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선, 건설/건축, 보험, 운송 주목**

KOSPI 2,550선대부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지속. 실적대비로도, 추가 측면에서도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선, 건설/건축, 보험, 운송 주목.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들의 반등시도 뚜렷해질 것

다수의 업종들이 단기, 중기 측면에서 중요 지지권, 변곡점 진입. 단기 트레이딩은 물론, 중기전략 측면에서 매집 가능.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업종은 추가 변동성 확대를 매집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2차전지, 인터넷 또한 단기 반등 이후 매물소화과정을 활용해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음

# 엔씨소프트 (036570)

이재은

jeeu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0**

상향

현재주가

**219,500**

(24.11.04)

다지털콘텐츠업종

## 3Q, 뜻대로 되지 못한 호연

- TP 상황. 2025년 인건비 7% 하향 조정 영향. 단, 밸류 부담 지속
- 3Q 신작 호연의 흥행 부진, 마케팅비 증가로 컨센 하회하는 실적 기록
- 4Q 탑라인 성장 예상되나 큰 폭의 인건비 증가 예고, 사라진 실적 모멘텀

투자의견 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20만원으로 기존대비 5.3% 상향

2025년 EPS 10,159원에 Target PER 19.6배 적용. 신작에 따른 이익 성장이 예상 되는 2025년을 산출연도로 설정. Target PER은 글로벌 peer의 2025년 멀티플 평균 대비 10% 할인 적용. 멀티플 할인은 2025년 기대작 출시까지 모멘텀 공백을 고려하였기 때문. TP 상황은 2025년 인건비를 기존 대비 7% 하향 조정한 영향

### 3분기, 뜻대로 되지 않은 호연

3Q24 매출액 4,019억원(YoY -5%, QoQ 9%), 영업손실 -143억원(YoY 적자전환, QoQ 적자전환) 기록. 매출은 컨센서스 부합,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기록. 신작 호연 관련, 예상보다 큰 마케팅비 집행이 컨센 하회 요인

3분기 매출은 TL 얼액의 판매분(순매출), 리니지M의 매출 QoQ 49% 반등과 신작 호연의 흥행 부진, 리니지W의 매출 하락이 혼재되어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 하지만, 흥행에 실패한 신작 호연과 기존 게임 업데이트 관련 마케팅비가 QoQ 180% 증가하면서 영업손실 기록. 한편, 3분기 로열티 매출에 반영된 TL글로벌 얼 리엑세스 순매출은 약 60억원으로 추정

### 4분기 탑라인 성장 예상되나, 큰 폭의 인건비 증가 예고

TL 글로벌은 10/1 정식 출시 이후 한달 동안 스팀에서 매출 순위 5위권 내외 유지, 트래픽 10만명 대 유지 중. 10월 할로윈 업데이트, 11월 공성전, 12월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 4분기 반영 순매출 약 410억원 추정. 또 다른 신작인 저니 오브 모나크는 4분기말 출시 예정으로 높은 사전예약자 수를 기반으로 흥행 기대감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 리니지 IP 기반의 저니 오브 모나크는 글로벌 출시 예정이나 사실상 과거 리니지 게임을 플레이했던 한국, 대만의 휴먼 유저가 주요 타겟일 것으로 예상. 4분기 일매출 10억원 추정. 신작 2종의 실적 기여로 동사는 3분기를 바탕으로 4분기 높은 실적 반등을 예상했으나, 회사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발표. 이에 따라 4분기 적자지속 전망. 인력 감소 효과와 2025년 대작의 출시로 연간 실적 개선이 전망되나 밸류 부담(2025년 기준 21배)은 지속되는 상황. 주요 신작 타임라인은 4Q24 저니오브모나크 → 2Q24 택탄, 기존 IP의 신규 장르 → 4Q24 아이온2, LLL 로 예상. 4분기 적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라진 4분기 호실적 모멘텀과 밸류 부담으로 보수적 의견 유지. 당사 추정치를 뛰어넘는 신작의 흥행 성과 가시화 시 추정치 상향 및 밸류 매력 증가 가능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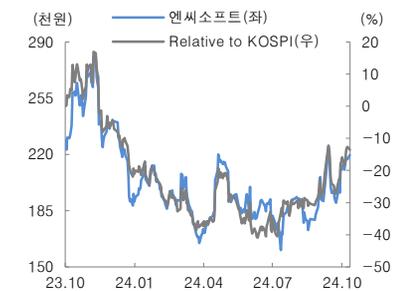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3Q23	2Q24	3Q24		4Q24					
			직전추정	집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23	369	396	402	-5.0	9.0	392	445	1.6	10.6
영업이익	17	9	2	-14	적전	적전	8	-43	적전	적지
순이익	44	71	40	5	-87.6	-92.4	28	-51	적전	적전

자료: 엔씨소프트,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2588.97
시가총액	4,81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81,000원 / 160,4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6억원
외국인지분율	35.20%
주요주주	각택진 외 12 인 12.01%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외 1 인 9.2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0	25.1	22.1	-15.1
상대수익률	4.2	29.3	26.3	-22.3



## 여행업

임수진 soojin.lim@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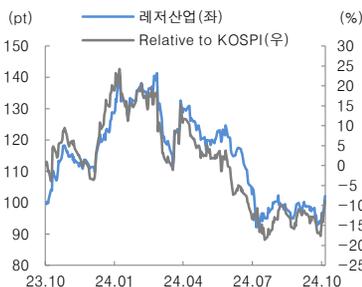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 Rating &amp;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하나투어	Buy	75,000원
모두투어	Buy	14,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	0.3	-21.0	0.9
상대수익률	4.1	3.6	-18.4	-7.7



## 중국향 순풍이 불어온다

- 중국 비자면제로 여행업 순풍. 2016년보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순풍 예상
- 25년 中패키지, 보수적인 가정해도 YoY+30%.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
- 3분기 악재로 실적 부진하나 4분기 정상화되는 모습. 턴어라운드 기대

## 11/1 中 외교부 비자 면제 정책 발표, 여행업 순풍이 불어온다

지난 1일 사상최초로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향 여행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과거 국내 중국 여행객 수는 비자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며 2016년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으나 '사드 리스크'로 역성장세 전환. 반면, 일본과 동남아의 경우 2017년 각각 +40%, +21% 성장하며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되어 중국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음. 비자 핸디캡 소멸 효과 뿐만 아니라 금번 비자면제로 중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2016년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며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됨

## 25년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 보수적으로 봐도 YoY +30% 이상 성장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최근 6개월 평균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 비중은 각각 16%, 20%.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운항편수 기저효과만으로도 2025년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는 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특히 중국의 경우 여행 여건 측면에서 일본과 동남아 대비 FIT 친화적인 여행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통 패키지 및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 중심으로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

## 3분기 악재로 실적 부진하나 4분기 턴어라운드 전망

3분기 일본 난카이 대지진 영향으로 패키지 취소 물량 예상보다 커 성수기임에도 부진한 실적 기록할 전망. 3분기의 경우 성수기에 대비하여 전체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예상치 못한 악재로 물량 소진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 미소진 물량에 대한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 시장 기대치 하회할 전망

하나투어, 3분기 매출액 1,650억원(QoQ +25%, YoY +30%), 영업이익 121억원(QoQ +230%, YoY -8%) 예상. 일본 패키지 송출객 수 QoQ -8.5% 감소하였으나 이외 지역 성수기 효과로 전체 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성장

모두투어, 3분기 매출액 558억원(QoQ +7%, YoY +4%), 영업이익 17억원(QoQ 흑전, YoY -48%) 전망. 일본 패키지 QoQ -19% 감소하였으며 전체 패키지 송출객 수는 -11% 기록. 경쟁사 대비 티메프 및 난카이 대지진 영향이 더욱 컸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발생해 회복세 더딘 모습. 이를 반영하여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하였으며 TP 1.4만원으로 기존 대비 -22% 하향

다만, 4분기에는 2분기부터 이어진 악재 영향이 소멸되며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10월 전체 송출객 수는 하나투어 19만명(MoM +12.7%, YoY +29.5%), 모두투어 8.8만명(MoM +20%, YoY +4.3%) 기록. 12월부터는 다시 성수기가 시작되며 중국 비자 면제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 권고

#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61390)

김귀연

gwiyean.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9,000**

유지

현재주가

**36,650**

(24.11.03)

자동차업종

KOSPI	2588.97
시가총액	4,54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6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3,100원 / 34,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69억원
외국인지분율	38.38%
주요주주	한국엔컴퍼니 외 22 인 43.22% 국민연금공단 7.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9	-14.4	-30.5	-12.7
상대수익률	-5.6	-11.5	-28.1	-20.2



## 실적이 아닌 투심의 문제

- 3Q24 OP 컨센/당사 추정대비 +15% 서프 => 주가 단기 반등 가능
- 추세적인 회복/상승 위해서는 주주환원(배당)확대 => 투심회복 필수적
- 주주환원 확인된다면, 최소 Peer 밸류(평균 8배/컨티 7배) 회복 가능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9,000원 유지

TP 5.9만원은 2024~25년 평균 EPS 11,335원에 목표배수 5.3배(글로벌 Peer Group 대비 35% 할인, 컨티넨탈 밸류 7.1배 대비 26% 할인된 수치) 적용. 2024/25년 평균 Implied PER 3.6배/PBR 0.4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 2024.5월 한온시스템 인수 결정 이후 주가는 -31% 하락. **호실적에 기인한 단기 반등 예상하나, 추세적인 주가 회복/상승 위해서는 주주환원확대 => 투심회복 필수적**이라 판단. 현재 동사의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 이에 보수적인 의견 견지

### 3Q24 매출 2.4조(YoY +4%, 이하 YoY), OP 4,702억(+19%), OPM 19.3% 시현

3Q24 컨센 매출(2.4조)/OP(4,075억), 당사의 추정 매출(2.3조)/OP(4,105억)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 일회성 요인 없이 영업이익 +15% 서프라이즈 기록하며 차별화된 이익체력 증명. 당분기 1) RE타이어 중심 판매 호조, 2) 안정적인 ASP 유지, 3) 고인차/고수익 Mix 개선, 4) 가동률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 개선 지속. 3Q24 지역별 매출은 한국 2,300억/중국 2,140억/유럽 1,0조/북미 6,330억원으로 YoY +12%/-11%/+11%/-3% 변동. 한국/유럽이 전체 실적 견인

### 더 좋은 4Q에 주주환원만 곁들여 진다면...

동사 4Q24 실적은 1) 계절성(윈터타이어 ↑), 2) 미국 반덤핑 관세 환입 가능성(800억+@) 감안 시, OP 5,270억원 예상. 이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자, 사상 첫 분기 OP 5,000억 달성하게 되는 것. 주가는 실적과 별개로 한온시스템 인수 관련한 1) 불확실성 해소, 2) 투심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2024년 연내 인수/유증 참여 마무리됨에 따라 동사는 1.8조원의 현금을 소진하게 될 것(3Q24말 순현금 2.0조). 실적에 대한 주주환원 제한적인 상황에서, M&A 진행 과정에서 불확실성 불가피. **유의미한 주가 리레이팅 위해선 1) M&A 관련 시너지/정당성 확보, 2) 강화된 주주환원(배당성향 강화) 필수적**이라 판단. 만약, 주주환원 관련 기초 확인된다면 **최소한 Peer Group 수준 밸류(평균 8.1배/컨티넨탈 7.1배)로의 회귀 정당성 확보** 될 것

(단위: 십억원, %)

구분	3Q23	2Q24	3Q24					4Q24		
			추정	잠정	YoY	QoQ	Consen	추정	YoY	QoQ
매출액	2,340	2,318	2,340	2,435	4.1	5.1	2,398	2,389	7.1	-1.9
영업이익	396	420	411	470	18.6	11.9	408	527	7.0	12.1
순이익	298	317	323	383	28.2	20.7	296	387	102.7	1.2

자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S-Oil (010950)

위정원

jungwon.weee@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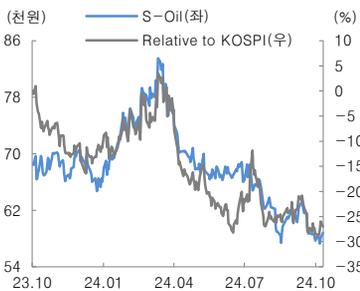
**58,800**

(24.11.04)

정유업종

KOSPI	2588.97
시가총액	6,78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2%
자본금(보통주)	28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3,500원 / 57,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9억원
외국인지분율	75.92%
주요주주	Aramco Overseas Company BV 외 5인 63.43%
	국민연금공단 7.3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8	-14.2	-16.4	-13.1
상대수익률	-6.5	-11.3	-13.5	-20.5



## 예상된 적자, 4Q 반등 전망

- 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으로 정유부문 3Q OP -5,737억원, 적자확대
- 중국 석유제품 수출감소, 북미/유럽 정기보수로 4Q 석유제품 수급 개선 전망
- 현재 동사의 PBR 0.76배로 근 5년 내 최하단, 단기 트레이딩 접근 유효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9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12MF BPS 76,146원에 Target PBR 1.1배 적용. 멀티플은 평균 ROE 4%를 기준으로 PBR-ROE 방식으로 산출한 이론 PBR을 적용

### 3Q24 Review: 예상된 적자

동사의 3Q OP -4,149억원으로 QoQ 적진. 운할기유를 제외한 정유/화학부문 감익. 정유부문 OP -5,737억원으로 QoQ -4,787억원 적자확대. 휘발유 마진 하락(3Q 평균 6.4달러/배럴, QoQ -52.5%)으로 원재료 래깅을 감안한 동사의 3Q 정제마진 -4.3달러/배럴(QoQ -4.8달러) 추정. 이에 더해 유가+OSP 하락(QoQ -11.6%)에 따라 정유부문 재고평가손실 -2,619억원 발생.

화학부문 OP 50억원 QoQ -95.5% 기록. 휘발유 블렌딩 수요 감소로 P-X 스프레드 하락(3Q24 241.5달러/톤, QoQ -22.6%). 전분기 마진 강세를 보였던 벤젠 역시 주요 설비 정기보수 종료로 스프레드 하락(QoQ -12%). 운할부문 OP 1,538억원으로 QoQ +5.5%. 아시아 지역 그룹3 운할기유 판가 상승(1,138.3달러/톤, QoQ +2.6%)한 가운데, 원가 하락으로 스프레드 개선

### 4Q24 Preview: 겨울과 함께 찾아올 반등

4Q 예상 OP 2,668억원으로 흑전 전망. P-X 마진 하락세 지속된다는 점에서 화학부문 개선은 제한적이나, 정유부문 예상 OP 1,044억원으로 QoQ +6,781억원 개선. 1) 중국 석유제품 수출 감소, 2) 북미/유럽 정기보수(각각 300만, 200만 B/D)로 4Q 수급 개선되며 추정 정제마진 2.7달러/배럴 QoQ +6달러 전망.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한 낮은 밸류에이션 감안 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 유효. 현재 동사의 PBR 0.76배 수준으로 근 5년내 밸류에이션 최하단에 위치

(단위: 십억원 %)

구분	3Q23	2Q24	3Q24		4Q24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9,000	9,571	10,189	8,841	-1.8	-7.6	8,989	8,359	-15	-5.4
영업이익	859	1,607	-333	-415	적진	적진	-274	267	흑진	흑진
순이익	545	42	43	-382	적진	적진	-190	216	34.7	흑진

자료: S-Oil, Fr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42,446	35,727	36,079	32,278	32,924
영업이익	3,405	1,355	467	766	789
세전순이익	2,899	1,132	58	505	528
지배지분순이익	2,104	949	43	364	381
PER	4.6	8.6	181.5	21.3	20.4
BPS	72,754	77,506	76,202	77,658	79,261
PBR	1.1	0.9	0.8	0.8	0.7
ROE	27.2	10.8	0.5	4.1	4.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S-Oil,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